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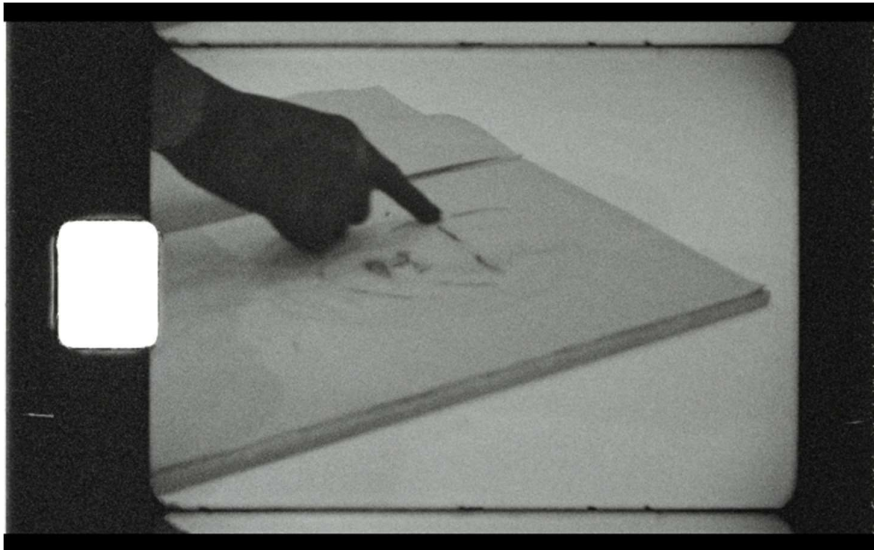


지미 로버트, 한국 첫 개인전 《에클립세 Éclipser》 개최

기사입력 2025.08.27 14:22

댓글수 0

-퍼포먼스와 신체, 종이와 이미지의 마찰 속에서 드러나는 재현과
권력의 균열



Jimmy Robert_Éclipser_2025_Barakat Contemporary

바라캇 컨템포러리(서울 종로구 삼청로)는 2025년 8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과들루프 출신 아티스트 지미 로버트(Jimmy Robert, b.1975)의 국내 첫 개인전 《에클립세 Éclipser》를 개최한다.

지미 로버트는 퍼포먼스, 사진, 영상, 조각, 텍스트를 가로지르는 작업으로 정체성과 재현의 정치학을 탐구해왔다. 그의 작품은 귀어와

인종화된 신체가 역사적, 동시대적 이미지 생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는지를 질문하며, 종이와 신체라는 취약한 재료를 매개로 움직임과 제스처를 통해 몸, 매체, 공간, 언어의 관계망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시각 중심적 미술사 관습을 흔들고 보는 행위와 보이는 존재 사이의 권력 구조를 재배치한다.

이번 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대표작들과 함께 신작 영상-퍼포먼스 <Éclipser>(2025)를 공개한다. 신작에서 로버트는 차학경(1951-1982)의 아카이브를 촉각적으로 추적하며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불가능한 만남을 예술적 기억의 차원으로 소환한다. 장갑 낀 손끝으로 아카이브를 더듬는 행위는 단순한 자료 연구를 넘어 신체와 기록의 접점을 열어 보이며, 예술적 기억이 감각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전시에는 그간 로버트의 주요 작업 또한 함께 소개된다.

<무제(세바스티앙)>(2006)과 <무제(미카엘)>(2006)은 군 입대를 앞둔 형제를 통해 제도와 남성성을 성찰하고, 나무 구조물은 전시 장치를 넘어 신체와 이미지를 지탱하는 조각적 장치로 기능한다.

<플리에 I Plié I>(2020)에서는 접힌 종이 형태와 신체의 동작이 겹쳐지며, 취약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종이의 물질성이 유동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또한 <브라운 레더렛 Brown Leatherette>(2002)에서는 인조가죽 소파와 같은 소재의 의상을 입은 작가의 몸이 마찰을 견디며 촉각적 저항을 드러낸다.



Jimmy Robert_Brown Leatherette_2002_Barakat Contemporary.

로버트의 관심은 일찍부터 미술사의 유산과의 대화에 닿아 있었다. <감정 교육 L'education Sentimentale>(2005)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소설 제목을 차용하고, 바스 얀 아더르의 낙하 시리즈를 재현하면서도 낙하하는 신체를 구원하는 서사로 변환한다. 이는 단순한 오마주가 아닌, 자신의 몸을 역사적 유산과 동일한 조건에 놓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다.

그는 이본 레이너, 오노 요코, 제너럴 아이디어, 마르셀 뒤샹 등 미술사적 인물들의 작업을 흉내 내거나 간접하며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대화를 이어왔다.

전시 제목인 '에클립세 Éclipser'는 프랑스어로 '가리다'또는 '식(蝕)을 일으키다'를 뜻한다. 단순한 소멸이 아닌, 가려지는 순간 드러나는 새로운 형상과 리듬, 보이지 않는 틈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

종이와 이미지, 신체와 언어의 접힘과 마찰을 통해 로버트는 제 3의 의미를 발생시키며 재현과 권력의 구조가 흔들리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Jimmy Robert_portrait_Barakat Contemporary

이번 전시는 로버트가 축적해온 예술적 궤적과 신작 <Éclipser>를 통해, 소외된 신체와 역사적 유산, 그리고 현재의 관객이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전시는 8 월 28 일부터 10 월 26 일까지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열리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 [더프레스 1 = 박흥로 기자]
thepress1@naver.com

저작권자 © (더 프레스 1[THE PRESS 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더 프레스 1 & www.thepress1.com